

1980년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연구*

- '연습'에 나타난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

김양희**

1. 서론

국어과목의 학습요소는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학습의 층위에서 이르는 말이다. 북한의 경우, 국어과 교육내용은 '사상정서교양'과 '지식기능'으로 구분되며 '지식기능'은 '국어원리지식'과 '국어기능'으로 구분된다. 총 4학년의 5권으로 구성된¹⁾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는 사상혁명교양을 담은 것과 원리지식을 담은 것으로 본문이 구성되고, 국어기능은 '연습'을 통해 실습하도록 구성된다. 이 때, 정치사상교양이나 혁명정서교양은 '국어' 교과서의 글분석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며 '국어원리지식'은 원리지식교재로 편재된 '과'를 통해 제시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어 학습 요소의 원칙과 그 실현을 분석하기 위해 소위 '원리지식교재'로 편재된 '과'와 '연습'의 내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AM104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는 1학기용과 2학기용 2권으로 분책되며, 나머지 학년은 각 1권으로 구성된다.

용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는 80년대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이다.

2. 80년대 북한 국어교육의 목표

북한의 국어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인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문화어와 혁명적 문학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길러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공산주의적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혁명적 정서교양, 정치 사상교양, 지식 기능교양으로 범주화하고, 각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있다.²⁾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980년대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는 김정일의 주체 사상 시기³⁾의 교과서이다. 80년대 북한의 국어교육은 혁명적 인재 양성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혁명적 언어생활 기풍 확립을 추가한다.⁴⁾ 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공식화한 이래,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어학 혁명의 방향을 혁명적 언어 생활 기풍의 확립으로 정하고 이를 국어과 교육에서 강조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언어 교육을 통하여 혁명 전통

2) 북한 국어교육의 목표 및 제반사항은 『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1973)을 참고하였다.

3) 김민수 편저(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p.34 참고 북한의 언어 정책은 철자 개정에 따라 제 1기 '통일안' 시대(1945-1954), 제 2기 '조선어 철자법' 시대(1954-1966) 제 3기 '조선어 규범집' 시대(1966-1987), 제 4기 '규범집 수정 시대'(1987-1996)으로 구분되고, 주의 사상에 따라 분류하면 제 1기 김일성 맑스 레닌 주의(1945-1093), 제 2기 김일성 주체사상기(1863-1983), 제 3기 김정일 주체사상기(1984-1996)으로 나뉘어진다.

4) 이하 북한의 80년대 국어과 교육 목표는 이인제(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II장을 참고하였음.

과 주체사상을 주입시켜야 한다는 북한 국어과 교육의 일관된 논리를 계승한 것이지만, 김일성이 강조해 온 사회주의적 민족어 건설이 혁명의 대상이고, 따라서 어학혁명이 혁명적 언어 생활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완결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혁명적 언어 생활은 문화어 교육과 연관된다. 문화어 교육의 내용은 혁명과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더불어 주체사상의 내면화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는데 필요한 사상교양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성격에 부합되는 북한의 국어과 교육은 사상교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런 입장에서 언어 생활은 ‘쇠소리’, 즉 혁명성을 높이기 위해 된소리, 거센소리를 쓰거나 혁명성이 가미된 언어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문장 표현에 있어서도 되풀이법, 점층법과 같이 전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⁵⁾ 이처럼 언어 생활 전반에서 강조한 혁명적 문풍의 확립운동은 90년대 들어 김정일의 언어생활 이론으로 계승·발전된다.

한편, 북한은 80년대 들어 1983년, 1986년의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국어교육의 변화를 꾀한다. 변화의 중심은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가 갖추어야 할 사상 도덕적 품모와 주체의 혁명 위업 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과내용에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국어과목의 시수를 줄이는 대신, 공산주의 도덕과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국어과목에 한정되었던 사상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80년대 들어 사상도덕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김원모, 「우리 시대의 말과 글은 쇠소리가 나아 한다」, 『문화어학습』(1980년 1호), p.14

3. 북한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 요소

북한의 국어교육에 있어, 읽기, 쓰기, 말하기는 국어기능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 세 영역은 김일성 혁명 사상과 당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대중선동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교양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⁶⁾ 본 연구에서는 국어기능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어지식 분야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문학부분은 북한의 문예이론을 중심으로 차후에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북한의 국어과 교육의 실상은 자료의 한계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평양에서 출판된 『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1973)⁷⁾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학습 요소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1973년에 제작된 국어교수법과 80년대 교과서 사이의 시기적 간극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말하기 영역의 학습 요소

북한의 말하기 영역 학습 요소는 말하기와 관련한 지식과 말하기 기능으로 구분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듣기가 따로 상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어교수법』⁸⁾에 의거하여 북한의 말하기 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6) “국어 교수에서의 읽기, 쓰기, 말하기는 교재 내용을 파악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글읽는 법, 글쓰는 법, 말하는 법까지 가르쳐 그들이 글을 잘 읽고 쓰며 말을 올바르게 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기능을 굳건히 다져주는 과업까지 해결한다.”(『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 p.166)
- 7) 『국어교수법』 외에도 분석과 관련하여 이인제 외(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평가원)를 참고하였다.
- 8) 해주 2사범대학 외(1973), 『국어교수법』, 교육도서출판사.

말하기지도는 큰 교양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그 의의는 우리말을 올바르게 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읽기수업에서 습득한 사상적, 지식 기능적 내용들을 자기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능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선전할 수 있는 산 사회정치활동가로 준비시키는데 있다.⁹⁾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말하기 지도는 ① 우리말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쓰는 능력을 키우고 ② 읽기 수업에서 습득한 사상적, 지식 기능적 내용들을 자기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능력을 키우며 ③ 당 정책과 김일성의 교시를 해설 선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국어교수법』에 따르면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 원칙과 그의 기본 요구를 똑똑히 가르치는 것이다.¹⁰⁾ 말하기 원칙은 말의 사회적 본질과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당성, 인민성, 문화성이 말하기의 목적, 태도, 입장이 된다. 이 세 가지 기본원칙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말하기 교육이 정치사상성의 내면화를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말하기의 기본 요구는 ‘말을 대상에 맞게, 쉽게, 구수하고 재미있게, 진실하게, 설득력 있고 선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말의 표현지도에서는 말의 사상적 내용을 옳게 지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표현수단들을 잘 활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조된다. 전자와 관련해서 말하기는 말하는 목적과 입장, 태도를 정확히 갖도록 지도하고 말하려는 내용의 중심을 세우고 순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말을 다듬고 조리 있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며, 후자와 관련하여 표준발음법, 억양과 어조, 쉬임과 속도, 말의 보조적 수단인 몸가짐, 표정,

9) 위의 책, p.184.

10) 위의 책, pp.184-189 참고.

동작 등을 잘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한다.

이상의 원칙과 기본 요구를 바탕으로, '말하기 형태'에 따라 말하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문답과정에서의 말하기 지도

- ① 발음이 똑똑한가
- ② 입말체의 특성을 살려 간결하게 말하는가
- ③ 말의 체계와 논리는 어떠한가
- ④ 교재에 있는 문장들을 적절히 이용하는가
- ⑤ 옮기는 말과 자기 말을 잘 이어놓을 줄 아는가
- ⑥ 말의 예절, 몸가짐이 바른가

。 교재내용의 말하기 지도

- 상세한 말하기의 지도

- ① 이야기체계를 상세히 잘 세우기
- ② 중요한 대목이나 특징적인 표현, 생동한 묘사, 인상적인 대화, 구절들을 외우게 하고 그를 입말을 옮기기
- ③ 교재의 내용을 직접 체험한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말하기

- 줄여서 말하기의 지도

- ① 교재내용의 기본줄거리를 반영하여 보장하여 체계 세우기
- ② 이야기의 기본줄거리를 보충하는 특징적인 결 이야기, 묘사, 대화를 따서 이야기에 섞기
- ③ 말이 간결하고 함축성이 있고 조리 있게 되도록 만들기

- 형태 바꿔 말하기

- ① 교재의 서술체계를 바꿔 말하기
- ② 운문을 산문형식으로 고쳐서 말하기

- 교재에 대한 느낌 말하기

- ① 교재전체에서 받은 감상 말하기
- ② 교재의 일부분에서 받은 느낌 말하기

다음으로, 이상의 말하기 영역의 학습요소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말하기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묻는 말에 대답하기	v			
인사말하기	v			
말할 때의 바른 몸가짐		v		
차례 세워 말하기		v		
느낌말하기			v	
문화어로 말하기			v	
조리있게 말하기				v

‘연습’을 통해 구체화된 말하기 학습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연습’의 말하기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기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기	9과(1,2), 13과(1), 18과(1), 22과(1), 27과(1)	4과(1,2), 7과(1), 15과(1,3), 22(1,2), 27과(1,2), 49과(1,2)	4과(1,2,3), 12과(1), 17과(1), 22과(1), 26과(1,2,3), 30과(1), 34과(1) 39과(3)	4과(1,2), 9과(1), 12과(3), 21과(1), 22과(2), 29과(1), 37과(1,2)
운문을 산문으로 고치기	22(1)		28(4) 40(4)	
차례에 따라 이야기하기	9과(3), 13과(1,2), 22과(2), 27과(3)	7과(2,3), 22과(3), 34과(1), 42과(1)	9과(1,2), 17과(3), 34과(2), 39과(2)	9과(2), 12과(2), 21과(2), 33과(2,3), 37과(3)
마음이 드러나게 이야기하기	27과(2)	7과(2) 34과(2)	12과(2), 17과(2), 30과(2), 39과(1)	12과(1)*
느낀 점을 자기말 (/차례에 따라)로 말하기		34과(3), 42과(2), 49과(3)	9과(3), 12과(3), 22과(3), 34과(3)	9과(3), 16과(3), 21과(3), 22과(3)
대상이 드러나게 말하기			22과(2)	33과(1)*, 39과(3)

위의 표에 따르면 인민학교 말하기 기능에서 가장 강조되는 영역은 ‘자기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기’이다.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를 자기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기
- 빈자리에 알맞은 말을 찾아 넣으면서 자기 말로 이야기하기
- 빈자리에 알맞은 말을 찾아 넣고 밑줄친 토를 고치면서 자기말로 이야기하기
- 글차례를 하나로 묶으면서 자기 말로 이야기하기

다음은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기’를 다룬 ‘련습’의 예문이다.

1. 다음 이야기에서 밑줄을 친 토를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시오
수학시간이었다.
용이는 똑바로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어디선가 새가 우짚었다.
용이는 창밖을 살그머니 내다보았다. (『인민학교 국어 2』, 4과 ‘련습’)

위의 학습활동은 ‘토’나 ‘단어’를 변형함으로써 우리말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밑줄 친 종결 어미 ‘다.’ 대신 다른 어미를 집어넣게 함으로써, 어미의 다양한 쓰임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학습활동은 우리말을 올바르게 말하는 기능을 함양하는 말하기 학습의 목표와 관련된다.

그러나 말하기 지도는 단순히 언어사용을 확장하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사상을 내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가령, 존대형 어미를 익히는 1-2 국어 교과서의 9과 ‘련습’을 보면 존대

형 어미로 바꾸도록 제시된 글이 지도자에 대한 공경심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다음 이야기에서 밑줄을 그은 말을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시오
아버지 원수님께서서는 아침 식사를 조금밖에 하시지 못하시고 댁을 나서
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시였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아버님께 국수를 만들어드리자고 하시였다.
(습니다.)

이상의 ‘련습’ 예문은 표면적으로 종결형어미 ‘다’를 존칭형 어미 ‘습니다’로 바꾸어 그 쓰임의 다양성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습득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더불어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에 대한 공경을 내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말하기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사상교육의 내면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의거하여 ‘련습’의 ‘말하기 학습’은 본문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본문내용의 정치사상성을 내면화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자기 말로 고치라고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상 말할 내용은 이미 글 교재를 통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기 영역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말하기 기능을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북한혁명사상을 심화하고 내면화하는 사상학습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말하기 교육이 원문통달식 교수법을 토대로 글의 내용을 암기 또는 암송하게 하여 집필진이 의도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말하기 학습 요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다. ‘운문을 산

문으로 바꾸어 말하기'인데 이는 운문적 요소를 산문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운문과 산문의 차이를 알고 표현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요소이다.

다음은 '운문을 산문으로 고치기'를 다루고 있는 '련습'항목이다.

4. 다음 시련을 이야기문장으로 고치시오

아버지 장군님

새 조선 세우시는 바쁘신 일로

또 다시 지새우시는 이 밤 (인민학교 『국어 3』 28과)

‘글교재’의 내용을 논의로 친다면, ‘운문을 산문으로 말하기’는 말할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운문과 산문의 원리를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읽기 영역의 학습 요소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읽기 영역은 국어지식과 국어기능 여타 학습요소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말하기, 글짓기, 글씨 쓰기’등 언어기능의 관련 학습 요소는 읽기 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교수법』에서 ‘읽기 교수’와 관련해서 기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3) 읽기능력

글을 읽고 옳게 이해하고 감상하며 분석평가할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11) 앞의 책, pp.48-52

- ① 글자를 알고 바로 읽을 수 있게 숙련시킨다.
- ② 단어와 어구의 뜻을 글줄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③ 문장의 뜻을 이해하며 표현들을 깊이 새겨서 느낄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④ 글의 글뜻,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⑤ 글의 주제와 사상을 분석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⑥ 글의 사상정서와 정경이나 인간의 심리가 그려져 있는 개소를 깊이 감상, 음미하면서 사고와 정서를 발전시켜나가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⑦ 글토막과 글의 체계를 분석파악하며 필자의 사고와 사상정서, 론리의 발전과정을 새기면서 주제전개의 특성, 론리전개의 방식, 수법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① 개략적 뜻을 파악하면서 읽을 줄 알게 숙련시킨다.
- ② 뜻을 깊이 새기며 사상 정서를 깊이 음미하면서 읽을 줄 알게 숙련시킨다.
- ③ 더듬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읽으며 뜻을 이해하면서 빨리 읽게 숙련시킨다.
- ④ 단어, 어구,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숙련을 준다.
- ⑤ 내용에 맞게 억양, 어조, 속도, 쉬임을 지키며 살려 읽는 숙련을 준다.
- ⑥ 글의 종류적, 문체적 특성에 적용하게 살려 읽을 줄 아는 숙련을 준다.
- ⑦ 자립적으로 책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 가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읽기 지도는 ‘글자 익히기’에서 ‘사상정서 함양’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교수법』¹²⁾에서는 읽기의 지도내용을 ‘글분석의 지식기능’과 ‘읽기, 쓰기, 말하기 기식기능’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화하고 있다.

제 2절 글분석의 지식기능형성의 지도내용과 방법

① 언어분석지도

- 말뜻풀이, 표현풀이, 문장새김, 말법지도(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

② 글의 글도막과 구성지도

③ 글뜻(대의), 요지 분석지도

④ 주제, 사상 분석지도

⑤ 인물 분석지도

⑥ 글의 특성 분석지도

제 3절 읽기, 쓰기, 말하기, 지식기능형성의 지도 내용과 방법

1. 읽기의 여러 형태들과 읽기 지도의 기본내용

1) 읽기수단에 따르는 읽기 형태들과 그의 지도

① 소리내여 읽기와 그의 지도

② 속읽기와 그의 지도

2) 읽기 심도 및 목적에 따르는 읽기 형태들과 그의 지도

① 스쳐 읽기와 그의 지도

② 새겨 읽기와 그의 지도

③ 살려 읽기와 그의 지도

2. 읽기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의식성, 정확성, 표현성

1) 읽기의 의식성과 그의 지도

2) 읽기의 정확성과 그의 지도

3) 읽기의 표현성과 그의 지도

3. 문체에 따르는 읽지도 내용과 방법

1) 회상실기글읽기의 지도내용과 방법

2) 소설글 읽기의 지도내용과 방법

3) 시 읊기의 지도내용과 방법

4) 대화 및 희곡 글 읽기의 지도내용과 방법

다음으로,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읽기영역요소를 검토해보자.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읽기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끊어 읽기	v			
동요 동시의 읊기		v		
읽기에서 끊기의 방법			v	
닿으며 달라지는 소리(자음동화)가 있는 단어 읽기			v	
문장 끝에서 높낮이의 개념, 문장의 갈래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하는 방법			v	
표현적인 끊기				v
읽기에서의 속도 조절				v

국어교과서에 반영된 읽기영역요소는 끊어읽기, 높낮이를 맞춰 읽기, 동요동시의 낭송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요소는 ‘연습’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연습의 읽기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끊어읽기(읊기): 끊기부호	6과(3) 10과(3) 15과(2) 19과(3) 28과(2)	1과(3) 9과(2) 13과(3) 16과(3) 19과(2) 24과(3) 29과(2) 35과(2) 39과(3) 43과(3,4) 47과(3)	1과(2) 6과(3) 10과(2) 16과(2) 19과(2,3) 23과(2) 27과(2) 31과(2) 36과(2)	3과(2) 7과(3) 13과(2,3) 17과(2,3) 20과(2,3) 32과(2) 36과(2,4)
높낮이(부호)에 따라 읽기	6과(4) 10과(4) 15과(3) 19과(4) 28과(3)	13과(4) 29과(4) 35과(3) 39과(4)	1과(3) 10과(3) 16과(3) 23과(3) 27과(3) 31과(3) 36과(3)	17과(3) 36과(3)

읽기부호에 맞게 읽기	6과(5) 10과(5) 15과(4) 19과(5) 28과(4)	1과(4) 13과(5) 16과(4) 19과(3) 24과(4) 29과(5) 35과(4) 39과(5) 43과(5) 47과(4)	1과(4) 6과(4) 10과(4) 16과(4) 19과(4) 23과(4) 27과(4) 31과(4) 36과(4)	3과(3) 7과(4) 13과(4) 17과(4) 32과(3)
발음법에 따라 읽기	6과(1,2) 10과(1,2) 15과(1) 19과(1) 28과(1)	1과(1,2) 3과(4) 9과(1) 13과(1,2) 16과(1,2) 24과(1,2) 29과(1) 32과(1) 35과(1) 39과(1,2) 43과(1,2) 47과(1,2)	1과(1) 6과(1,2) 10과(1) 16과(1) 19과(1) 23과(1) 27과(1) 31과(1) 36과(1)	3과(1) 7과(1,2) 13과(1) 20과(1) 32과(1) 36과(1)
말아 읽기*				39과(4)

* '말아읽기'는 회곡에서 등장인물을 역할분담하여 인물에 걸맞는 표정과 어투, 힘주기와 끊어읽기로 글을 읽는 것이다.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읽기 영역의 학습요소는 '발음법에 따라 읽기' 부분과 '낭송·낭독'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읽기'가 여타의 학습요소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글자를 바로 알고 읽을 수 있게 숙련시키는' 것을 일차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숙련인데, 읽기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발음법을 들 수 있다.

1. 다음 단어에서 밑줄을 친 글자를 바로 읽고 쓰시오
뽀뽀뽀뽀, 고운, 흰쌀, 쉬여서
2. 다음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시오
물어봤더니, 굵고, 험벗고, 찾아간대요

(인민학교 『국어 1-2』 6과 연습)

이상은 '발음법에 맞춰 쓰기' 학습요소로 국어지식에 근거하여 바른 읽

기를 연습시키고 있다. 북한에서의 읽기 교육은 이러한 초보적인 문자 이해에 근거하여 글 분석단계로 넘어간다. 글분석은 글토막(문단), 글뜻(대의), 요지 등을 분석하거나 주제, 사상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글토막이나 글뜻을 분석하는 것은 글의 사상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여기서 글분석능력의 고양은 사상정서의 함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분석 대상으로 제시되는 글교재가 대개 사상성을 짙게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다음 글차례를 하나로 묶으면서 <빵 세 개, 사과 다섯 알>의 글뜻을 이야기하시오.

(빈자리에 글뜻 내용을 넣으면서 이야기한다)

첫째 이야기-성삼이가 돌석이와 함께 배에 올라 빵 세 개와 사과 다섯 알을 받아가지고 바다구경을 떠나는 이야기

둘째 이야기-독약을 넣은 빵과 사과를 먹은 아이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이야기

셋째 이야기- 승냥이 미제놈들이 살아남은 성삼이마저 깊은 바다 속에 처 넣는 이야기

글뜻 - ()

인민학교 『국어 4』 33과 연습

인민학교 『국어 4』에 33과 「빵 세 개, 사과 다섯 알」은 남한을 배경으로 미국의 마루타로 죽어 가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위 연습 항목에서 「말하기」의 일환으로 제시된 글뜻 분석은 북한 교과서에서 글분석이 갖는 의의를 알려준다. 북한에서 읽기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읽기」의 본질을 「의식성, 정확성, 효과성」에 주목하면서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의 재구성 과 비판을 통해 열린 텍스트를 지향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글교재는 그

자체로 완성된 ‘달한 텍스트’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텍스트의 정치편향성이다. 북한의 글교재는 대개 ‘정치적으로 공정한’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사상의 집결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를 잘 읽고 분석하는 것은 곧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사상을 내면화하는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설령 비판적 읽기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다른 글을 비판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발음법에 따라 읽기’가 ‘읽기’의 기초기능형성단계에서의 어휘지도방법을 실현한 것이라면, ‘낭송·낭독’은 글에 담겨진 사상감정을 어조를 통해 구현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서 ‘낭송과 낭독’은 주로 시үүл기로 제시된다. 시үүл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읽기 부호, 끊기 부호, 높낮이 부호에 따라 읽기’는 사상감정의 심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어조를 미리 마련해두고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사상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은 읽기 영역과 관련된 ‘련습’ 항목이다.

1. 다음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시오
목란꽃, 심었지, 피웠지, 꽃봉오리, 같이, 아름답게

2. 다음 시련을 끊기 부호에 맞게 읊으시오

꽃/ 꽃/ 목란꽃/
제일 고운 목란꽃/
원수님 동상앞에/
정성다해 심었지///

3. 다음 시련을 높낮이 부호에 맞게 읊으시오

→ → →

꽃 꽃 목란꽃
 ↘
 흰 눈보다 하얀 꽃
 →
 원수님 우리러
 ↘
 곱게 곱게 피웠지.

4. 다음 시련을 읽기 부호에 맞게 읊으시오.

→
 원수님 우리르느/
 ↘
 조선의 꽃 목란꽃/
 →
 대를 이어 오래오래/
 ↘
 아름답게 피울래요///

(인민학교 『국어2』 9과 연습)

위 연습 항목은 ‘읽기’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성이다. 국어교과서에서 ‘읽기’ 연습은 발음법, 맞춤법에 맞는 읽기를 제시한 후, 끊어읽기, 높낮이 부호에 맞게 읽기를 학습하고, 끊어읽기와 높낮이에 맞게 읽기를 종합한 것으로 마무리된다. 발음법 즉 국어지식과 관련된 영역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신, 낭송에 대한 연습은 여러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어교수법』에 제시된 ‘운문글 교재’에 대한 지도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시의 내용 즉 시적 사상감정을 운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 읊기의 기본요구이며 다른 읽기와 구별되는 시 읊기의 고유한 특징이다. 시 읊기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의 사상감정의 지도를 앞서워 시의 사상적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파악하고 체현함이 없이는 시를 정서적으로 운률적으로 읽을 수 없다. 시의 사상감정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의 정서적 구조를 밝혀 주며 시적인 사상감정을 낱게 한 시적 정황들을 잘 분석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문장, 시적인 언어표현지도를 잘하여야 한다. 시문장에서는 시의 표현성과 음악적운률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휘표현수법들과 문장론적 수법들이 리용된다.¹³⁾

시는 여타의 문학장르에 비해 정서적 감응력이 높은 장르라는 점에서 사상교육에 적합하다. “시를 부단히 반복하여 읽게 하여 운문의 사상정서에 깊이 침투하도록 하며 그를 외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운문글교재의 취급방법을 참고하면,¹⁴⁾ 북한이 시 읊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목표를 혁명적 인간형의 양성으로 둔 북한의 교육관점을 감안하면 말하는 방법이나 읽는 방법을 전형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선동선전능력을 높이고 혁명적 인간형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제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에서 살려 읽기의 지도를 중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살려 읽기가 글의 사상정서를 잘 살려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높은 예술적 수준에서 읽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살려 읽을 사상정서적 내용을 실지 경험해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기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¹⁵⁾ 두 번째 이유는 살려 읽기를

13) 위의 책, p.179.

14) 위의 책, p.212.

15) 방신정, 「살려읽기지도는 좋은 화술지도 방법」, 『문화어학습』(1981, 4호), p.27.

통해 화술능력을 키움으로써, 선동선전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군중 앞에서 시도 읊고, 소설도 읽으며 연설도 해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여야 학생들의 독서열의도 높아지고 화술도 좋아지며 배운 지식을 효과 있게 써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자라게 됩니다.”는 김일성의 교시¹⁶⁾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꿰어읽기’는 사상감정의 마디, 사상감정의 단락으로서 연을 이해하는 북한의 관점에 의거한 방법이다. 각각의 연을 잘 꿰어 읽는 것은 사상감정의 진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일차작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살려 읽을 내용을 완전히 체득하게 된다. 살려 읽을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높낮이에 맞춰 읽는 것이 요구된다. ‘높낮이에 맞춰 읽기’는 화자의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위한 방법이다.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감정이 어디서 어떤 생활적 바탕에서 흘러나왔으며 누구의 어떤 입장과 견해의 반영인가를 로동계급적 선에서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그것은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감정의 분석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시분석에 대한 기본관점¹⁷⁾을 고려할 때, 높낮이에 맞게 읽는 것은 서정적 자아의 사상이 어떤 굴곡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를 따라가는 과정이며, 서정적 자아의 감정에 낭송자 자신의 감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차적 과정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읽기 방식은 시의 주제와 정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전일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다.

3) 쓰기 영역의 학습요소

북한의 쓰기 학습 요소는 글짓기 영역과 글씨 쓰기 영역으로 나뉜다. 『국어교수법』에 따르면 쓰기 지도의 내용에는 어려운 글자(단어), 표현의

16) 『김일성저작선집』 7권, pp.334-335, 앞의 글에서 재인용.

17) 위의 책, p.211.

적기, 문장 쓰기, 글토막제목 및 글토막 내용의 쓰기, 사상적 내용의 쓰기, 짧은 글짓기, 과제 쓰기 등이 포함된다.¹⁸⁾

(1) 글짓기 영역

『국어교수법』에서 제시한 글짓기 과정의 지도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글짓기 준비 단계
 - 주제, 제목 선정하기
 - 글감 찾기, 글체계 세우기
- 쓰기 단계
 - 글을 쓰는 데서 자신감 갖기
 - 주제를 뚜렷이 살려나가며 쓰기
 - 글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 내용에 맞게 적절한 말과 표현들을 찾아 쓰기
 - 우리말 규범에 맞게 글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쓰기
- 다듬기 단계
 - ① 글의 내용상 측면에서
 - 자기가 하려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 사상적 내용이 뚜렷하며 글의 사상적 내용에 반영된 자신의 입장 등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톤톤히 섰는가
 - 글의 사상적 내용이 진실하게 드러났는가
 - 제목과 내용이 통일되었는가
 - 글의 주제 사상적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군더더기가 없는가

18) 이하 위의 책, pp.165-275 참고

② 글의 형식상 측면에서

- 구성의 측면에서
 - 체제가 정연한가
 - 글토막의 구분이 정확한가
 - 글토막이 바뀔 때 새 줄을 잡아썼는가
- 문체의 측면에서
 - 어휘표현들이 나타내려는 대상과 현상에 알맞은가
 - 다듬어진 말들을 썼는가
 - 문장성분이 제대로 어울렸는가
 - 시계칭관계를 정확히 가려썼는가
 - 문화어를 썼는가
- 표기상 측면에서
 - 틀린 글자와 빠뜨린 글자는 없는가
 - 띄어쓰기는 제대로 되었는가
 - 문장부호들을 제대로 썼는가

이와 더불어, 인민학교 수준에서 적합한 글짓기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그림글짓기 : 그림을 보고 느낌을 적는 것. 본격적인 글짓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할 것
- 옮겨글짓기 : 읽은 책의 내용을 본따서 요약 또는 보충하는 짓기. 그림 글짓기와 더불어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글짓기이다.
- 느낌글, 생활글, 일기, 편지, 동요, 동시 짓기

이상의 글짓기에서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로동계급적인 관점·사회주의적 관점·김일성원수에 대한 결의와 충성심 등 사상교양적 태도이다.

그러면,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서 글짓기 영역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글짓기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짧은 글짓기	√			
떠어쓰기의 방법	√			
제목달기		√		
이야기글쓰기		√		
차례를 세워 글쓰기		√		
알맞은 말 골라 쓰기		√		
일기쓰기		√		
글감을 풀라 쓰기			√	
편지쓰기			√	
토론글 쓰기			√	
기행문쓰기			√	
목표가 뚜렷이 드러나게 글쓰기				√
글감을 찾는 방법				√
글의 체계를 세우는 방법				√
감상문을 쓰는 방법				√
생동한 표현 꾸미는 방법				√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반영된 글짓기 학습요소는 글짓기의 과정과 관련하여 ‘떠어쓰기의 방법, 제목 달기, 차례를 세워 글쓰기, 알맞은 말을 골라 쓰기,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게 글쓰기, 글의 차례 세우기, 생동한 표현 꾸미기’ 등을 학습요소로 선정하고 있으며, 문종에 따라 ‘이야기글, 일기, 편지, 토론글, 감상문, 기행문 쓰기’ 등을 다루고 있다.

‘연습’항목은 주로 짧은 글짓기, 칠자법, 떠어쓰기, 문장부호넣기, 틀린 글자 찾아 바르게 고치기 등의 국어규범에 관련된 내용과 ‘생동한 표현으로 바꾸기, 독후감 쓰기’ 등의 글짓기 학습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표를 통해 드러나듯이, 글짓기 영역은 국어규범에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연습'의 글짓기 영역 학습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철자법에 맞게 고치기	3과(4), 12과(4), 31과(3)	12과(2), 16과(1), 28과(2), 31과(3), 40과(2), 44과(2)	3과(5) 28과(5)	10과(5) 31과(4)
생동한 표현으로 바꾸기			33과(3)	31과(1)
독후감 쓰기			12과	
짧은 글짓기	16과(1,3), 21과(6), 30과(3), 31과(2)	21과(1), 31과(1), 36과(1), 44과(1)	7과(3) 33과(2)	1과(2) 10과(3) 19과(4) 26과(3) 35과(3)
띄어쓰기에 맞게 고치기		6과(4), 28과(3)	7과(5)	10과(5), 19과(5) 23과(5)
문장부호 익히기	7과(5)	10과(2), 21과(3) 24과(2), 50과(3)	24과(5)	10과(4), 31과(5)

북한의 글짓기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제시된 글짓기 학습요소가 실제 '연습'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 도표에서 드러나듯이, 실제 글쓰기와 관련된 연습 항목은 '생동한 표현으로 고치기'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생동한 표현으로 고치기'는 제시된 단어를 생동한 표현으로 고치는 것으로 소극적이거나 학생들의 창조성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글짓기의 실체는 별반 드러나지 않는다. 독후감의 실제로 제시된 3학년 12과 '동화 《놀고 먹던 꿀꿀이》를 읽고'의 경우 북한의 모방적 교육관, 즉 잘 쓴 글을 제시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교육관이 반영되어 있다. 3학년 교과서 12과 '동화 《놀고 먹던 꿀꿀이》를 읽고'의 연습 항목은 '자기말로 말하기', '느낀 점을 차례대로 말하기' 등 창조적 글쓰기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학생들은 '부지런히 일하자'는 동화의 교훈을 재인하고 빈칸에 그 내용을 채움으로써, 본문에 내재된 가치를 비판 없이 수용하도록 유도된다. 글짓기를 비롯한 쓰기 영역이 연습 항목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쓰기 교육이 '말하기'나 '이야기하기'의 학습 요소에 비해 정치사상교육을 하는데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술문화는 문자문화에 비해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라고 주장한 옹의 견해를 빌자면, '쓰기' 교육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여 수용자의 의식을 재구조화하는 문자의 특성상, 사상의 내면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추론은 북한이 실제적인 쓰기 교육보다는 지식 중심의 쓰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방적 교육관을 우위에 둔 북한의 교육관과 관련되는 바, 타영역에 비해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글짓기 영역은 본문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기는 하되 '련습' 항목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 글씨 쓰기 영역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글씨 쓰기는 '필순, 간살조화, 글줄 맞추기' 등 한 글의 구성과 관련된 글씨 쓰기 규범과 공책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국어교수법』¹⁹⁾에 따르면 글씨 쓰기의 학습요소는 글자의 구성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획의 원리 때문에 '필순에 대한 원칙'이 생기며, 자모결합의 원리 때문에 '간살조화의 원리'가 요구되고, 가로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떠어 쓰기, 맞물려쓰기, 글자와의 간격, 밑줄맞치기, 글줄에서 글자의 크기' 등 글씨 쓰기의 규범이 생겨난다고 한다.

다음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글씨 쓰기 학습 요소이다. '련습'항목에서 글씨 쓰기 학습 요소는 별도로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19) 위의 책, pp.271-281.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글씨 쓰기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글씨 쓰는 차례	√			
새운 글자와 늙힌 글자 쓰기		√		
받침 있는 글자의 쓰기		√		
학습장에 글씨 쓰기			√	
글줄 맞추어 글씨 쓰기				√

4)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 요소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요소는 자모, 음운, 형태, 어휘, 문장 등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의 단위로서 자모, 음운, 단어, 문장의 기본개념에 대한 것으로부터 음운현상과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지식을 체계화하고 있다.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어지식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모의 차례와 이름	√			
단어의 개념과 의의	√			
문장의 개념과 의의	√			
토의 개념과 기능	√			
단어의 의미와 기능		√		
존경토 '시'의 쓰임과 기능		√		
된소리·거센소리되기		√		
이어내는 소리, 끊어내는 소리		√		
문장의 구성과 기능		√		
김일성 부자 경어			√	
문장의 갈래			√	
똑같은 말과 반대말				√
입말의 개념과 특성				√
문장의 갈래-단일문과 복합문				√

〈'연습'의 국어지식 학습 요소〉

학습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문맥에 맞는 단어 빈칸에 넣기	3과(1) 7(1) 12(2)	18(1) 21(1) 25(1) 38(1) 46(1)	7(1,3) 20(1) 28(1) 37(1)	6(1) 19(1) 26(1) 28(1) 40(1)
물건 이름 떠올려 쓰기	25(5)			
단어 이어 짧은 글짓기	16(1,3) 25(4) 30(3) 31(2)	6(2) 10(1) 12(1) 21(1) 28(1) 31(1) 36(1) 40(1) 44(1) 46(1) 50(1)	3(1) 7(3) 15(3) 33(2) 40(3)	1(2) 6(3) 10(3) 15(3) 19(4) 31(2) 35(3) 40(3)
문맥에 맞는 토 빈칸에 넣기	31(5)	12(3) 25(2)	13(5) 37(5)	15(5) 40(5)
함께 쓰이는 단어 연결하기	3(2) 16(2)	3(2) 25(2)	7(2) 33(1) 37(2)	6(2) 40(2)
반대말, 비슷한 말	7(2,3) 12(3)	1(1) 21(1) 28(1)	13(1)	15(1)
뜻이 다른 두 단어 합쳐서 된 단어 찾기		44(1)	28(1) 40(1)	
끝소리 이어 새단어 만들기		6(2) 25(1) 31(1) 38(1) 46(1)	3(2) 20(3) 40(2)	6(4) 35(1)
두 단어 합쳐서 새 단어 만들기	21(4) 30(1) 31(1)	28(1) 44(1) 50(1)	13(3) 37(3)	19(3)
접사 활용하여 새 단어 만들기				19(2)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전환하기	21(4) 31(2)	6(3) 25(2)	13(4) 20(5)	15(4) 23(2,3) 26(5) 31(2)
대화를 평서문으로 고치기			3(3)	23(3) 26(4) 31(3)
이야기 글을 주고 받는 말로 고치기				
단일문, 복합문, 전환		18(2) 21(2) 46(2)	3(3) 33(5)	28(1) 35(4) 40(4)
된소리, 거센소리, 이어내는 소리 찾기		39(1) 43(1)		
주어진 단어로 문장 만들기	16(4) 30(4)	3(3) 18(2) 36(2) 46(2)	7(4) 33(5)	28(5) 35(5)

인민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지식은 문화어에 대한 지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어에 대한 지식교육은 크게 단어와 문장에 관한 것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단어 학습 요소와 관련한 학습요소로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이들 단어를 이어 짧은 글을 지어보게 하는 ‘짧은 글짓기’가 강조된다. 그런데 이 학습을 위해 제시된 단어는 ‘혁명과업, 실천, 총칼, 불길’ 등 이른바 혁명성을 강조하거나, ‘한평생, 바치다, 만수무강’ 등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단어 혹은 ‘처참하다, 몸서리치다’ 등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들로 문장을 조립하도록 하고 있다. II장에서 제시한 바, 80년대 국어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문화어 교육에 있고, 문화어 교육의 의의는 주체사상에 걸맞는 혁명적 인간형을 혁명적 언어생활을 통해 양성하는데 있다. 이 때 혁명적 언어생활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골라쓰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주체형의 혁명가’, ‘주체의 기치’ 등 로동계급성을 드러내는 어휘, ‘미제승냥이, 전쟁미치광이’ 등 미일제국주의자를 비롯한 계급적 적들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는 어휘, ‘단매에 요정내다’, ‘각을 뜨다’와 같은 전투성을 고취시키는 말들이 적합한 어휘로 권장된다.²⁰⁾ 이런 구체적인 지도방안은 80년대 국어교과서에 ‘짧은 글짓기’ 학습으로 실현된다. 이 항목은 표면적으로는 문장구성학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시된 언어들을 숙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짧은 글짓기 학습’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언어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 과제라 하더라도 이면적으로는 80년대의 국어교육의 목표인 혁명적 언어기풍 확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에 대한 지식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어미와 조사를 총칭하는 ‘토’

20) 김연모, 앞의 글 pp.14-15

와 김일성 부자 관련 경어를 들 수 있다.

‘토’는 ‘단어 뒤에 붙여서 쓰이는 것’ 즉 어미와 조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어 1-2』 교과서에 실린 ‘토란 무엇인가’(26과)를 참고하면 토의 기능은 첫째, 단어와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이루게 하고 둘째, 문장성분을 결정함으로써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를 칭하는 경어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주체사상적 인간형을 양성하려는 국어교육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인민학교 『국어3』의 ‘높이 우러러 모시는 말’(2과)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경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일성에 대한 경어로는 ‘위대한 수령, 경애하는 수령, 아버지 수령, 경애하는 아버지’ 등이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경어로는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이 있으며, 일반적인 존칭어미로 쓰이는 ‘-시’, ‘-께’, ‘-께서’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존경과 흠모를 나타내는 토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의 태도를 설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언어사용은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

문장에 관한 학습 요소에서도 정치편향성은 드러난다. 예를 들어 4학년 28과 ‘순회를 생각하며’에서 단어 이어 문장 만들기 항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5. 다음 단어들을 이어 바른 문장으로 만드시오

- ㄱ. 악독하기, 그런데, 눈을, 그지없이, 지주놈이, 빼앗아갔습니다. 순희에게
- ㄴ. 안타깝게, 두눈을, 나도, 때, 흐느껴 울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순희가, 쥐어 뜯으며, 함께

학습 과제 7이 의도하는 문장은 ‘그런데, 악독하기 그지없는 지주놈이 순희에게서 눈을 빼앗아갔습니다.’이고 8은 ‘순희가 안타깝게 두 눈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칠 때 나도 흐느껴 울었습니다.’이다. 이 두 문장은 지주에 의해 실명한 순희의 이야기를 통해 지주와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유도하는 본문의 주제와 정서를 표현한 핵심문장이다. 이것은 ‘문장만들기’가 읽기 제재에 갖든 사상성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기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3. 결론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980년대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는 김정일의 주체 사상 시기의 교과서이다. 80년대 북한의 국어교육은 혁명적 인재 양성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혁명적 언어생활 기풍 확립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분석의 결과, 북한 국어과 교육의 당면 목표는 북한 교과서의 학습 요소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우선 북한의 ‘말하기’ 영역 학습요소는 ‘교재 내용말하기’과 ‘교재에 대한 느낌 말하기’가 중심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말하기 영역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말하기 기능을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북한혁명사상을 심화하고 내면화하는 사상학습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말하기 학습 요소 중 ‘운문을 산문으로 바꾸어 말하기’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운문적 요소를 산문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운문과 산문의 차이를 알고 표현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요소이다.

다음 ‘읽기 영역’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읽기 영역은 국어지식과 국어기능 여타 학습요소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말하기,

글짓기, 글씨 쓰기' 등 언어기능의 관련 학습 요소는 읽기 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교과서에서 '읽기' 연습은 발음법, 맞춤법에 맞는 읽기를 제시한 후, 끊어 읽기, 높낮이 부호에 맞게 읽기를 학습하고, 끊어읽기와 높낮이에 맞게 읽기를 종합한 것으로 마무리된다. 읽기 교육에서 낭송 및 낭독을 중심으로 하고, 낭독·낭송에 대한 연습을 여러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쓰기' 학습 요소는 글짓기 영역과 글씨 쓰기 영역으로 나뉜다. 『국어교수법』에 따르면 쓰기 지도의 내용에는 어려운 글자(단어), 표현의 적기, 문장 쓰기, 글토막 제목 및 글토막 내용의 쓰기, 사상적 내용의 쓰기, 짧은 글짓기, 과제 쓰기 등이 포함된다.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반영된 글짓기 학습요소는 글짓기의 과정과 관련하여 '띄어쓰기의 방법, 제목 달기, 차례를 세워 글쓰기, 알맞은 말을 골라 쓰기,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게 글쓰기, 글의 차례 세우기, 생동한 표현 꾸미기' 등을 학습요소로 선정하고 있으며, 문종에 따라 '이야기글, 일기, 편지, 토론글, 감상문, 기행문 쓰기' 등을 다루고 있다. '연습' 항목은 주로 짧은 글짓기,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넣기, 틀린 글자 찾아 바르게 고치기 등의 국어규범에 관련된 내용과 '생동한 표현으로 바꾸기, 독후감 쓰기' 등의 글짓기 학습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쓰기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실제적인 쓰기 교육보다는 지식 중심의 쓰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방적 교육관을 우위에 둔 북한의 교육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글씨 쓰기는 '필순, 간살조화, 글줄 맞추기' 등 한 글의 구성과 관련된 글씨 쓰기 규범과 공책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요소는 자모, 음운, 형태, 어휘, 문장 등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의 단위로서 자모, 음운,

단어, 문장의 기본개념에 대한 것으로부터 음운현상과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지식을 체계화하고 있다. 단어와 문장 학습은 혁명적 언어기풍을 세우는 당대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참고 문헌

- 『국어 1-2』(1985), 인민학교 제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 『국어 2』(1988), 인민학교 제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 『국어 3』(1988), 인민학교 제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 『국어 4』(1987), 인민학교 제 4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 『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1973),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 김민수(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서울.
- 김연모(1980), 「우리말과 글은 쇠소리가 나아 한다」, 『문화어학습』 1980년 1호, 평양.
- 방신정, 「살려읽기 지도는 좋은 화술지도 방법」, 『문화어학습』, 1981년 4호, 평양.
- 이인제(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인제 외(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평가원.
-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역락, 서울.

■ Abstract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 People's School Subjects in 1980's -

Kim, Yang-H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North Korean education in People's Schools. In 1980s North Korean education was regarded as weapon for linguistic revolution and Korean language was taught in order to set up Juchae Ideology(Independent Idea) in languages and literature. The Korean education in People's Schools point to North Korean views on languages, i.e., viewing Korean education as a means to train the student to form revolutionary ideas.

It is clear from the fact that they mainly select the language material which are function-based and suitable for teaching political ideology. For example, the story-telling in speaking instruct, reading aloud in reading instruct, and writing short passages in writing instruction support this claim. And in language knowledge instruct, they select a word are related to cultural language and certain people-Kim, Il Sung and Kim, Jung Il-gives additional evidence. It means that North Korea education is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for ideological education.

[Key word] 1980s North Korean People's School subjects, speaking instruct, reading instruct, writing instruction, knowledge instruct